그 사람 지금은

(34) 이대순 前 체신부장관 〈상〉

"80년말 '대통령 뜻이니 총선 나가라' 통보받아"

"전남도 교육감 임기가 3년이나 남은 1980년 11월이었습니다. 당시 민정당 전남도당위원장이던 정래혁씨가 전화해서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서 갔더니 총선에 나가라더군요. 그래서 거부했지요. 그리고 이기호 당시 문교부장관에게도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김종호 전남지사와 정치권 입문 제의가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말고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월3일 남산외교구락부로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11대 총선 민정당 후보가 모두 나왔더군요. 이미 대통령 결정 사항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전남도교육감과 재선 의원을 지낸 이대순(75) 전 체신부장관이 반강제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얘기다.

1932년 고흥군 점암면에서 태어난 이 전 장관은 벌교남초등학교를 다녔다. 부모님이 자식 교육을 위해 벌교로 이사를 했던 것이다. 이 전 장관의 부친은 이곳에서 사업을 했다.

그리고 이 전 장관은 순천중·고교를 다니기 위해 순천으로 다시 유학길을 떠났다. 어머니만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 따라나섰다. "그때 이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어머니는 제 뒷바라지를 위해 사셨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한 6개월여 정도 입주과외교사를 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돌아가셨지요"

서울대 법대에 다니던 이 전 장관은 다른 동기들처럼 사법고시에 응하지 않았다. 학생회 활동 때문이었다.

1979년 이대순(왼쪽) 당시 전남도 교육감이 광주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교육감 시절 결국 他意로 정계 입문

김종호지사와 '정치 사절' 약속 깨져

"순천고 때 학생회장을 했지만 서울 법대 내 고교동기가 3명뿐이어서 공부만 하고 학생회 활동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 대의원을 뽑는데 호남권에서 한 명은 돼야 한다며 친구들이 밀어줘서 대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 체육대회 때 중고 때 축구선수를 했던 경험 때문에 법대 축구대표로 나가게 됐습니다. 원래 법대는 운동을 못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우승을 하다 보니 교내에서 제 인기가 올라갔어요. 이것을 계기로 호남을 대표하는 학생회장 후보로 추천됐고 결국 학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학 졸업 후 자진 입대했지만 2대 독자인 관계로 짧은 군생활을 보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시 공부를 위해 순천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주변 상황이 또다시 그를 고시공부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당시 자유당에서 국회부의장까지 지냈던 황성수 선생이 1959년 전남도지사로 내려가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기독학생회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낸 관계로 축하인사차 찾아갔는데 도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도지사 부속실 비서(주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황씨가 보성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전 장관은 함께 도청을 나왔고 황씨의 당선 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1961년 5·16 혁명이 일어나면서 황 선생은 공민권을 박탈당했고 저는 전북공무원교육원의 교관(사무관급)으로 공직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선배의 소개로 당시 문교부 최현규 차관에게 발탁돼 차관실에서 근무하며 문교부 생활을 시작했지요"

이 전 장관은 문교부에서만 15년여를 근무하다가 1979년 6월부터는 전남도 교육감으로 근무했다.

"교육감 근무 중 5·18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김종호 신임 지사와 함께 도민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노력했지요. 그해 가을에 있었던 전국체전에 공을 들여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에는 8~9등 정도 하던 실력이었는데 그해에는 예상 외의 성적을 거둔 것이지요"

약 력

- ▲1932년 고흥군 점암면 출생
- ▲순천중·고, 서울 법대 졸업
- ▲11~12대 국회의원
- ▲체신부 장관
- ▲호남대·경원대 총장, 한국대학총장협회 이사장
-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우여곡절 끝에 민정당에 입당한 이 전 장관은 1981년 11대 총선과 1985년 12대 총선에서 고흥·보성을 지역구로 출마해 유준상씨와 함께 당선됐다. 타의로 출발한 정치 인생이었지만 그는 7년 동안 상당한 일을 해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광양제철 위치 선정에 역할을 했고 교육세 등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재정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농어촌부터 의무교육연한을 중학교까지 연장했으며 대학교육협의회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대학 자율과 대학평가를 골자로 한 법으로 당시 입학 및 졸업 정원을 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을 막고 대학문제는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장관 때 '1가구 1전화 갖기' 추진

지금의 IT강국 기반 됐다고 자부"

것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또 미국의 제도를 도입, 대학평가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12대 국회에 입성하자 민정당 사무차장을 맡았고 이어 1986년 8월에는 체신부장관에 임명됐다.

"장관 재직 시 저는 현재 IT강국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부합니다. 1가구 1전화 갖기 운동을 벌여 1천만 세대에 전화를 보급했으며 디지털 종합전산망을 구축했습니다. 전자부품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전국 우체국 저금을 전자부품소재 기업에 싼 이자로 대출해준 은행에 입금해주기도 했습니다. 나웅배 당시 상공부장관과 함께 전자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등 노력 끝에 섬유제품이 수출 1위를 기록하던 관례를 깨고 1987년에는 전자분야가 수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장관직을 그만둔 뒤에는 여당의 원내총무로서 현행 헌법을 여야 합의로 만드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문화동

진등자락서 삼국시대 석실분 발견

도동고개엔 광복후까지 주막 즐비

각화나들목과 호남고속국도간 공사가 끝나 제2순환도로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일제 말부터 1953년까지 만든 각화저수지 바로 아래 길이 270m의 간이사장교를 비롯 다리 4개와 120m 터널이 설치됐다.

문화동(文化洞)은 1957년 법정동인 문흥(文興)동과 각화(角化)동을 합해 만든 행정동이다. 1970년대 광주교소도가 옮겨오고, 동문로가 확장되면서 시내버스 종점지대가 됐다. 현재 관할 구역은 대부분 각화동이고, 문흥동은 일부지역으로 6천600세대 1만8천여명이 살고 있다.

각화동은 군왕봉에서 기우제를 지냈던 장군봉을 거쳐 바래(탈)봉, 대(태)봉(277m), 도동고개로 이어지는 북서방향 능선의 서편자락으로 서방천의 발원지다. 불당골, 큰골, 까(꼬)시등골, 무숫골, 우(수)락골, 강력골, 뒷골에서 흘러내린 물은 진들, 군버들, 옥밭들, 정가배미, 장수논을 적셨다. 들산재와 마(모)갈재를 넘으면 청풍동과 망월동에 이른다.

1987년 발견 당시 각화동 고분(김학휘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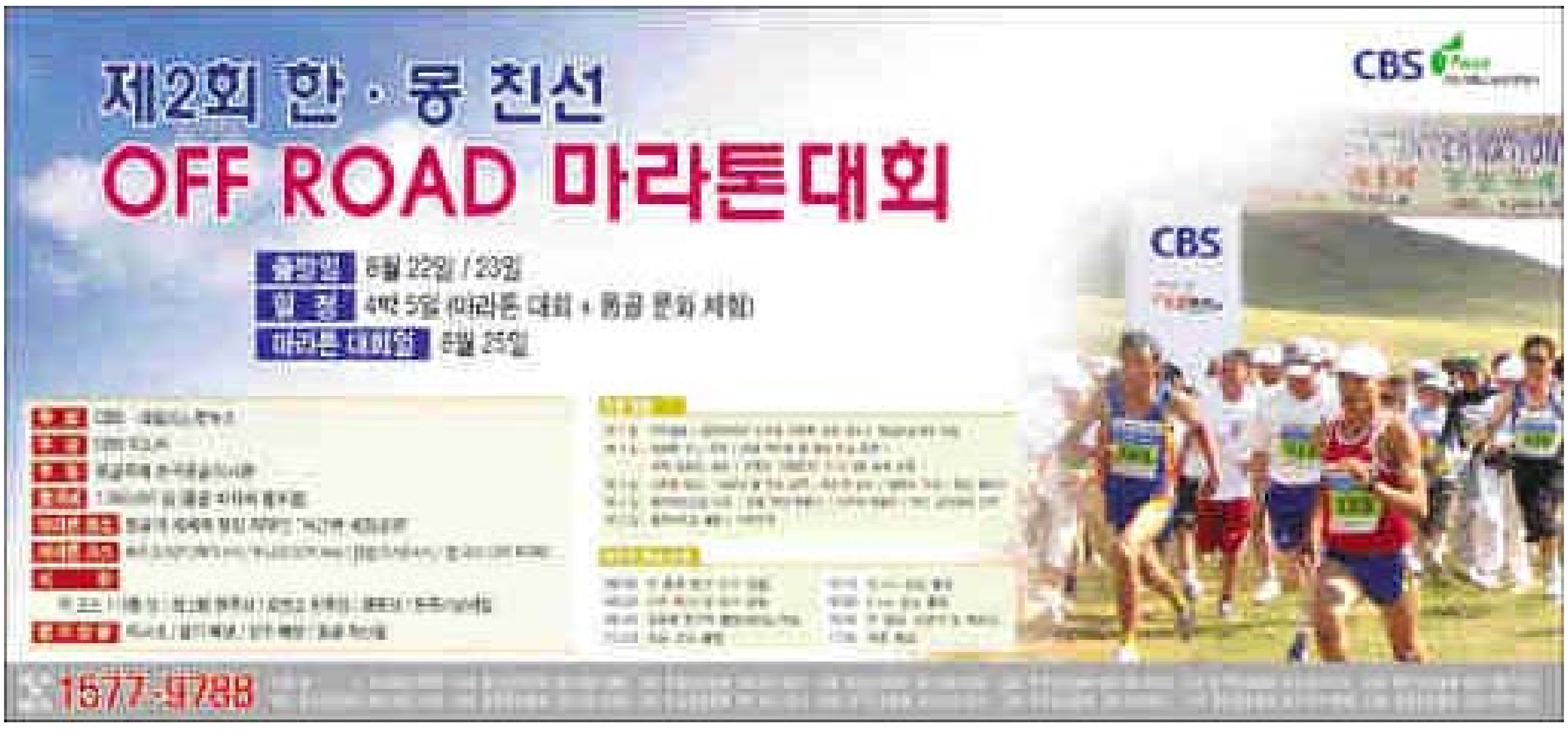
산비탈(까금)아래 터잡은 각화마을에는 300년생 느티나무가 있다. 함평 이씨 제각과 김해 김씨 임계서원이 있으며, 광산 김씨 윤식은 천석지기였다. 1921년 동네 앞으로 담양 간 철길이 놓였는데, 지금의 풍향로다.

대봉에서 내려선 등성이인 '진등' 끝자락에서는 삼국시대 돌방무덤(石室墳)이 1987년 중장비에 의해 일부 파괴된 채 발견됐다. 1991년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으로 사라진 이 고분의 크기는 직경 15m, 높이 4m였다. 내부는 북벽(세로) 178㎝, 현실 바닥폭(가로) 130㎝, 상단폭(천정) 90㎝, 높이 153㎝였다. 출토된 유물은 연질 황갈색 무문토기와 경질 흑회색 토기 각 2점, 장식용 유리제소옥 8점, 병 아가리 조각과 흑색 항아리 밑부분 조각 각 1점, 철편 23점과 철 화살촉 1점이었다.

각화정수장 부근 해발 150m 구릉지에도 직경 13m, 높이 4.5m 크기의 고분이 있다. 주인에게 충실한 개무덤이 위에 있다고 하는데, 수풀로 덮여 있다.

도동고개는 광주와 담양을 잇는 중요한 통로로 '도둑고개'라고도 했다. 18세기 해동지도에 '저원(猪院)'으로 기록돼 있다. 광복 후까지 주막과 마방이 있었다고 한다.

농산물도매시장은 하루 700톤의 과일과 채소가 거래된다. 광주원협, 광주·중앙청과에 종사하는 유통업자는 경매사 30명을 비롯 1천2백여명이며, 하루 1만명과 차량 8천대가 출입하고 있다.

2000년 쌈지공원으로 출발한 문화동 '문화가 꽃피는 마을사업'은 시화(詩畵)가 있는 마을을 꾸며지면서 지난해는 169단체에서 3천600명이 방문했다. 올해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로 전국 1위를 했다. 지역특성과 역사성이 지닌 의미도 보탰으면 한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